



이희학 | 목원대

1. 들어가는 말

구약성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사회를 배경으로 탄생된 책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주인공은 남성들이 훨씬 많으며 대부분의 구약성서 본문들은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구약성서는 지금까지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독립적인 권위와 인격을 소유하지 못한 열등한 존재였던 것처럼 등장하고 있다. 만일 여자들이 의해 기록된 본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의 틀을 깨뜨리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www.kci.go.kr

그런데 과연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남성 중심적 세계관에 역행하고 진정으로 여성적인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구약성서의 본문이 존재할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것일까? 약간이라도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문화에 도전하며 여성 해방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여성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때로는 투쟁하는- 본문은 없는 것일까? 아니면 당시의 가부장적 세계상과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고 있는 본문은 없는 것일까?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있다면, 혹시 여성신학적 관점으로 새롭게 읽을 필요는 없을까? “남성 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고 갖가지 성적, 계급적, 종교적 차별을 비판하며 남녀 모두를 차별적 사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¹⁾ 구약성서를 새롭게 읽어내려는 작업은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야 하는 우리 시대의 필연적 성서 해석학의 과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피조물적 동등성’을 인정해야 한다.²⁾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가로막는 모든 차별적 행위를 거부하신다는 사상을 내포한 본문을 찾으려는 시도³⁾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신학계의 과제이자 여성신학의 과제이기도 하다.⁴⁾ “우리는 성서 본문에서 가부장적 정신을 뛰어넘는 평등과 정의와 화해의 메시지를 읽을 것인가 아니면 가부장적 유산만을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단해야 한다.”⁵⁾

1) 이경숙, “이스라엘의 조상 사라와 베두인의 조상 하갈 이야기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410호 (1993년 2월), 159.

2) 이희학,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행동 -창세기 1-11장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10.

3) 이경숙, “구약성서에 나타난 성폭력과 여성옹호”, 『구약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17-234.

4) 이경숙, “희년을 향한 한국 여성신학의 과제”, 『구약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35-252.

5) 이경숙, “생태학적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본 구약성서의 자연과 여성”, 『구약성서의 하나님 · 역사 · 여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28.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세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이며,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 것이다. 아브라함-이삭-야곱으로 이어지는 세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에서는 ‘족장’이라는 용어자체가 암시하듯 세 명의 남자들이 원역사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인류 역사의 주인공으로 소개되고 있다. 족장사는 말 그대로 남자들의 이야기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족장사는 남자들이 주도한 세계 역사에 관한 기록이며, 그러므로 그 관점은 남성적일 수밖에 없으며 저자도 남자라는 말이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족장들에 관해 본질적으로 다른 상을 찾아낼 수도 있다.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을 만나게 된다. 족장 아브라함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는 사라가 사건 전개에 또 다른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족장 이삭의 이야기에서 리브가는 사라가 감당했던 여주인공으로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족장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다도, 창세기 29장부터는 야곱의 삼촌 라반이라는 남자보다는 그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탄생이 두 여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설명되고 있으며, 디나, 빌하, 다말이라는 여자들도 족장 이야기를 상당부분 ‘여자들의 이야기’로 읽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족장들의 이야기를 고대 이스라엘 내지는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문화를 배경으로 읽고 해석하여 왔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대로 이 관점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남자 조상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 주인공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부모들의 이야기’인 셈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면 관계상 세 명의 족장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의 이야기⁶⁾를 새롭게 읽어보고자 한다.

2.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창세기 12장 1절-25장 18절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족장 부부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21장 이후부터는 이들에 대한 소개가 두 번째 족장 부부인 이삭과 리브가의 생활과 함께 뒤섞여 등장하기도 한다. 야곱을 포함한 세 명의 족장들의 보도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가족제도나 혼인 제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당시의 여성들의 지위 내지는 위치가 가부장적 관점 하에서 묘사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중에서 가부장적 억압과 성차별적 관점을 가진 몇 개의 본문을 선택하여 그 안에 은폐되고 숨겨져 있는 여성 해방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고자 한다.

1) 셈의 족보(창 11:10-26)와 데라의 족보(창 11:27-32) 다시 읽기
창세기에 자주 등장하는 족보(창 5:1; 6:9; 10:1; 11:10,27; 25:12,19; 36:1)는 일종의 문학양식이다.⁷⁾ 이 족보들은 일종의 압축된 인류 역사의 대기록인데, 태고의 오랜 기간을 살았던 인간들의 대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도 족보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창 2:4). 족보는 태고적 역사의 요약이며, 오랜 시간동

6) 아브라함과 사라의 원래 이름은 당연히 아브람과 사래이다. 아브람의 이름은 창세기 17장 5절 이후부터 아브라함으로 변경되었고, 사래는 창세기 17장 15절 이후부터 사라로 바뀌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름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직접 인용되는 성경구절이 아닌 경우에는 통일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7) 왕대일, “데라의 가정, 데라의 후예 - 창 11:27-32-”, 『기독교사상』437호 (1995년 5월), 244.

안 이 땅위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축약된 소개이다.⁸⁾ 이 족보들은 성서해석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유의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족보들은 한 개인의 가정사를 정리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족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셈의 족보는 노아의 아들 셈부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10세대의 직선적인 계보인데, 원역사와 족장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족보와 함께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들을 보도하는 태고 시대에서 벗어나 특별히 선택된 가계의 역사를 다루는 족장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셈의 족보는 창세기 5장 1-32절에 언급된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10세대의 족보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⁹⁾ 각각의 족보의 주인공은 분명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역사의 시조이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물이고 노아는 홍수 이후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조상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이다.¹⁰⁾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이 족보는 독점적으로 남자들의 이름만 소개하고 있어 남자만의 족보로 오해할 수도 있다.¹¹⁾ 그동안 이 족보는 남성 중심적 해석에 의존하여 해석되어 왔다. 그 때문에 족보가 갖

8) 이희학, *윗글*, 177.

9) *윗글*, 283.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와 비교해보면, 11장의 셈의 족보에서 두 가지 두드러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홍수 이후의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나훔은 148세밖에 살지 못했다. 셈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맏아들을 낳은 연대도 매우 낮아졌다. 나훔은 29세에 첫아들을 낳았을 정도이다. 셈의 족보는 인간의 수명이 세상에 죄가 만연함에 따라 현저하게 줄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셈에서부터 데라까지의 총 연대를 320년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수 40의 8배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족장 야곱까지의 연대(160년)도 40의 배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40x4).

10) G. J.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 (Texas: Word Books, 1987), 249.

11) 기수현, "아브라함과 선조들 이야기의 문학적 접근", 『신학전망』136호 (2002년 봄), 103.

고 있는 여성 해방적 의미를 발견하는데 게을렀다. 하지만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족보가 역사의 진행과정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 주인공에는 여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족보 안에서 눈에 띄는 특별한 문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각각의 세대를 소개한 후에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וַיֹּלֵד בָּנִים וּבָנוֹת)와올레드 바님 우바노트)라는 간단한 요약 진술이 뒤따르고 있다(창 11:11, 13, 15, 17, 19, 21, 23, 25). 족보는 고맙게도 “딸들”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다. 족보는 비록 남성중심의 직선적 계보로 기록된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딸들”도 인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셈의 족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문장은 다음에 언급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창 11:27-32)¹²⁾와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데, 4명의 남자들(아브라함, 나홀, 하란, 롯)과 3명의 여자들(사라, 밀가, 이스가)의 등장을 준비시키고 있다. 사

12) 데라의 족보(창 11:27-32)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편집적 관공구(참고, 창 11:10; 25:12, 19; 36:1; 37:2)는 새로운 단락의 출발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셈의 족보(창 11:10-26)와 쉽게 분리될 수 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וְאֵלֶּה הַיּוֹלֵדִים לְדֵרָא וַיֵּלֶד וְוֵעֶלֶד תְּלֵדוֹת דֵּרָא). 창세기 11장 27절이 전승된 한 단락의 처음임을 암시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창세기 11장 26절이 셈의 족보의 마지막 인물인 데라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식은 아담의 족보에서 마지막 인물로 등장하는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 창세기 5장 32절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26절도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와는 달리 G. W. Coats,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3), 237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셈의 계보(창 11:10)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의 죽음과 매장을 보도하는 창 25장 11절에서 끝을 맺고 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창세기 11장 27-32절을 첫 번째 단락, 12장 1-9절을 두 번째 단락, 나머지를 세 번째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C. Westermann, *Genesis, 12-36,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81), 152-155는 창세기 11장 27절-12장 9절을 전체 아브라함 이야기의 서론으로 간주하고 있다.

라의 이름은 창세기 11장 29절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¹³⁾ 이 구절에 따르면 사라는 하란의 딸이며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그리고 데라의 족보에서 주목을 받는 인물은 놀랍게도 사라이다. 창세기 11장 30절은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자식이 없는 여자는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참고. 삿 13:2-3; 삼상 1:2-8; 사 54:1).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에 대한 열망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구약성서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들의 고통과 서러움을 여러 번 소개하고 있다: 리브가(창 25:21), 라헬(창 29:31-30:24),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삿 13:2-20),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삼상 1:1-2:21), 수벰 여인(왕하 4:8-17). 그러므로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언급은 그녀에게 매우 치명적인 아픔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앞으로 펼쳐질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모티브가 될 것을 예시하고 있다. 사라의 “임신하지 못함”의 주제는 원역사가 끝나고 새롭게 펼쳐지는 족장사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임신하지 못함”은 새로운 역사가 더 이상 펼쳐질 수 없는 심각한 중단 사태를 야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족보는 아직은 임신하지 못한 사라가 족장사의 “숨겨진 주연”이 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데라의 족보에서 말하고 있는 “사라의 임신하지 못함”과 “자식 없음”의 강조는 역설적 의미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라의 임신하지 못함”은 이제 곧 “사라의 임신”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사라의 자식 없음”은 “사라의 자식 있음”으로 변화될 것임을 암

13) 사라와 밀가는 원래 이름이라기보다는 칭호라고 보아야 한다. 히브리어로 사라는 공주, 밀가는 여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밀가의 지위가 사라보다 높은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라는 여왕을 의미하는 아카드어 ‘사라투’(sarattu)로, 밀가는 공주를 의미하는 아카드어 ‘말카투’(malkatu)와 관련시킨다. 이 두 단어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달 신 숭배와 밀접히 연관된 칭호들이다. ‘사라투’는 달 신인 ‘신’(sin)의 부인이고, ‘말카투’는 달 신의 딸 ‘이쉬타르’(ishtar)의 이름이다.

시한다고 볼 수 있다.

데라의 족보 한 가운데 언급된 “사라의 자식 없음” 모티브는 -역사의 전면에는 분명 남성들이 부각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성도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족보는 임신하지 못한 사라의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베스터만은 데라의 족보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⁴⁾ 우리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의 문장 뒤편에 숨겨져 있는 사라의 가슴앓이 고통을 동정하고자 하는 족보의 귀중한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족보는 여인으로서의 자기구실을 못하는 사라를 위로하고자 한다.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라가 족보의 한복판에 소개되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라의 임신하지 못함”을 역설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 여인도 족보를 계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 아닌가! “사라의 임신하지 못함”은 데라 족보의 한복판에서 그녀의 임신을 예고함과 동시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생산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창 12:1-3)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데라의 족보 한 가운데서 “임신하지 못한” 사라의 애절한 사연에 관한 소개는 분명 그녀에게 동정적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이야기 전개의 비중이 데라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 보다는 사라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데라의 족보를 들여다 보면, 족보의 주인공은 데라나 아브라함이 아니다. 데라의 족보의 주인공은 임신하지 못한 여인 사라인 것이다. 아직 자녀가 없었던 사라는 시아버지 데라와 다른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의 가족 이동에 동참하게 되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그녀는 다시 가족들

14) C. Westermann, *룻글*, 156.

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된다(창 11:31; 12:5).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 가족의 여행은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에게 새로운 운명을 준비시키고 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 개인사의 비극을 뚫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여인인 것이다.

2) 위험에 빠진 사라 이야기(창 12:10-20) 다시 읽기

사라와 관련된 첫 번째 의미 있는 사건, 다시 말하자면 사라가 사건 전개 중심에 서 있는 첫 번째 사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¹⁵⁾ 발생하게 된 바로 왕 궁에서의 사건(창 12:10-20)이다.¹⁶⁾ 애굽 국경에 도달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용기를 잃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라를 보고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자신을 죽이게 될까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계획을 꾸미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을 때의 나이가 75세였던 것을 감안하면(창 12:4), 애굽으로 향했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 이상일 수밖에 없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열 살 아래였기 때문에(참고, 창 17:17), 사라가 애굽을 방문했을 때의 나이는 최소 65세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늙은 여인이 아름답단다! 늙은 사라의 자태가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의 남편을 죽이고서라도 취할 정도의 눈부신 여성적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사라가 애굽에 나

15) 창세기 43장 1-2절; 47장 4절에 따르면, 기근이 발생하게 되면 팔레스틴 남부지역의 주민들은 훨씬 더 기름진 땅 애굽으로 물러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 잘 알려진 바대로 창세기 12장 1-20절은 다른 두 개의 비슷한 이야기(창 20:1-18; 26:1-11)와 함께 비교 연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양식사적 연구는 클라우스 코호, 「성서주석의 제방법: 양식사학이란 무엇인가?」(허혁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75), 171-222. 원제는 Klaus. Koch, *Was ist Formgeschichte? Methoden der Bibelexese*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74)을 참고하라. 여성신학적 해석을 시도한 글로는 유연희, “누가 위험에 빠진 미녀를 구하라 -수사학으로 읽는 창세기 26:1-11-”, 『한국여성신학』51집 (2002년 겨울), 9-27이 있다.

타나는 순간 애굽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넋을 잃었고, 곧바로 애굽의 신 하들은 늙었는데 심히 아름다운 이 여인의 등장을 바로에게 보고하였다. 사라는 결국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가게 되었다. 하늘 아래 숨 쉬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사라와 비교될만한 여인을 찾을 수 없었을 정도였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사이에 아랍어로 기록된 창세기 외경(1QapGen)¹⁷⁾은 사라의 미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양하고 있다.¹⁸⁾ 그래서 미국의 낭만파 시인 롱펠로우(Henry W. Longfellow 1807~1882)는 그녀의 눈부신 미모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는지도 모른다.¹⁹⁾

“....아브람이 사라와 함께 이집트로 갔던 날,
그 땅의 색깔은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밝아졌다.”

사라는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여자이다(창 11:29). 사라는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혼인을 한 여인이라는 말이다. 비록 아직 사라는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잠자리를 같이 한 부부인 것이다. 아브라함은 동시대의 관습에 따라 친척 중에서 부인을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사라는 현재 그의 부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에게 사라는 누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며 진실 왜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브라함은 진실을 가리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던 못난 남편이었다. 우리는 12-13절에서 이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

17) 창세기 외경은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의 일부에 속한다.

18) “그녀의 얼굴 모양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지, 그녀의 머릿결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녀의 눈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녀의 코는 얼마나 매력적인지.....그녀의 발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리도 완벽하네.... 참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은 어떤 여인보다도 우월하다. 모든 여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녀의 미모! 이 모든 아름다움에 더하여 그녀는 지혜도 많아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창세기 외경 20:2-8)

19) 왕대일, “보쌌당하는 사라”, 『기독교사상』 532호 (2003년 4월), 125 재인용.

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구절은 남편이 부인을 향해 내뱉은 위협의 말인데, 본문은 여기서 남편 아브라함의 관심의 가면을 벗기고 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²⁰⁾ 사건 진행의 핵심은 부인 사라가 남편의 거짓과 배신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있다.²¹⁾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의 동의는 필요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 시대에 모든 여성은 사라처럼 철저히 무시당하며 살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본문이 여기서 이 여성 차별적 시대상을 비꼬고 조롱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부인 사라의 무응답은 남편 아브라함의 파렴치한 폭력적 억압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²²⁾ 본문은 여기서 남편의 독단적 결단에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부인의 모습에 측은함을 표시하고 있으며, 남편의 일방적 결정이 얼마나 우매하며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사라는 기가 막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진술했었기 때문에 그녀는 매력적인 여인으로 인정받고 아무런 문제없이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두둑한 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어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말인가! 본문은 이 긴장감 넘치는 사건의 근본적 책임은 족장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의 부인 사라는 철저히 억울한 희생자였음을 말하려고 한다.

20) 게르하르트 폰 라트, 「창세기」(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181. 원제는 Gerhard von Rad, *Das erste Buch Mose: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2). 창세기 12장 11-13절에서 “부부간의 다정한 대화”를 찾아내지만, 본문은 결코 사라의 대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21) I. Fischer, “Genesis 12-50. Die Ursprungsgeschichte Israels als Frauengeschichte”, in: *Kompendium Feministische Bibelauslegung* (Gütersloh: Kaiser, Gütersloher Verl.-Haus, 1998), 13.

22) 왕대일, *딤후* (2003년 4월), 128.

본문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철저히 희생당한 한 여인에 대한 강한 동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은 고대 시대에 강자가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는 일반적 관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본문은 남편의 계획이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후에 바로의 책임 추궁은 사라를 향하지 않았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바로는 사라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18a절)라고 심하게 비난하였다. 본문은 과거 족장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황당했던 사건의 책임은 부인 사라가 아니라 가부장적 권위의 소유자인 남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철저히 부인을 희생시킴으로 남편 혼자 위기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다. 남편은 아무 근거도 없이 두려워하였고, 그의 문제 풀이 전략도 적절하지 못했음이 증명되었다.²³⁾

본문들이 남편 아브라함의 비행과 실수를 반복적으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질타하는 본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바로의 비난은 3번에 걸쳐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는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분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3)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민담 이야기는 추측컨대 이스라엘 남쪽에서 전승되다가 후에 현재의 문학적 콘텍스트의 자리를 잡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위치에서 사라의 위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원래적 분위기는 사라지고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개입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다: 천사무엘,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창세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00.

18a절: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172 마)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18b절: 내가 어찌하여(172 랍마)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a절: 내가 어찌(172 랍마)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세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수사학적 의문사 “어찌하여”는 바로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으며, 아브라함의 행위가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바로의 계속된 질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차별적 행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억압적인 가부장적 권위로 자신의 아내를 희생시킨 아브라함의 행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짓말 아닌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로 위협의 말을 일방적으로 내뱉었고, 자신의 실제적 아내를 권력이 있는 다른 남자에게 넘겼기 때문이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당부한 19b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의 말은 사라가 더 이상 애굽 왕의 성적 노리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사라는 원래 남편이 있던 여자라는 것이다. 바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이제 모든 일이 원위치로 돌아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버린 비참한 여인을 보호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여성신학적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사라가 바로의 궁에서 구출 받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첫 번째 구원행

위였다는 것이며,²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야웨 하나님의 첫 대상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였다는 것이다.²⁵⁾ 가부장적 시대에 살았던 여인 사라는 남편의 철저한 희생양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당당한 실제 주인공이었던 셈이다.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의 뒤바뀐 운명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후에 이 여인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은 남성만을 상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 가부장적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라는 애굽의 왕궁에서 구출 시켜준 사건에서 우리는 초라하게 버림받은 한 여인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성차별을 거부하시며 연약한 여인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사라는 구원하셨던 일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본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구절이다(창 12:17).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잘못된 아브라함에게 있지 바로와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의 신하들은 남편이 없는 여인을 취해 바로에게 상납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관행적 모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는 분명 남성이기에 세상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못 여성들을 그의 성적 노리개로 취할 수 있었다. 아름답다면 여자의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65세가 넘은 여인 사라도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바로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본문이 고발하려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래의 일로”라는 구절에서 여인을 남자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는 당시의 성차별적 사고에 대한 과감한 도전정신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이 큰 재앙을 받았다는

24) Maria-Sybilla Heister, *Frauen in der biblischen Glaubensgeschichte*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86), 14-16.

25) 이경숙, *릿글* (1993년 2월), 163.

것은 심지어 애굽의 왕조차도 마음대로 여인을 취할 수 없으며 소유할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우리는 그 증거를 15절의 “이끌어들인지라”(מִצֵּרָה 라카흐)라는 단어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 단어는 힘 있는 강자가 힘이 없는 약자를 자신의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단어는 약자는 저항할 수 없으며, 동의나 협이가 필요 없음을 전제한다. 어떠한 동의를 얻지 않은 채로 바로의 신하들은 왕궁 안으로 사라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사라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사치였고, 마치 짐승과 노예나 다름없이 취급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벌을 내리신 것은 큰 권력을 이용하여 가문에서 생존하기 위해 애굽으로 이주한 연약한 한 여인을 -비록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다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취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보낸 재앙은 애굽으로 살기 위해 이주해 들어온 한 여성을 노예처럼 취급한 권력자를 향한 분노의 채찍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서의 본문은 당시의 권력과 남성의 힘에 희생을 당한 연약한 여인 사라에게 따뜻한 동정을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사라의 임신과 아들의 출생 이야기(창 16~21장) 다시 읽기

데라의 족보에서 언급되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불임 주제는 창세기 16장에서 다시 한 번 부각된다.²⁶⁾ 여기서 “자식 없음”은 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선 여성의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데, 1절은 불임의 문제

26) 창세기 16장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구약논단」특집호에 실린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라: 한동규, “나그네살이 인생과 자손의 약속(창 16장)”, 「구약논단」제13권 1호(통권 23집; 2007년 3월), 12-30; 정석규, “창세기 16장의 구조분석적 해석”, 「구약논단」제13권 1호(통권 23집; 2007년 3월), 31-51; 이영재, “이스라엘 탄생기에 나타난 오경신학과 그 발달사 -창 16장 1-16절 문단의 공시읽기와 통시읽기-”, 「구약논단」제13권 1호(통권 23집; 2007년 3월), 52-75; 김상래, “이데올로기 비평으로 본 창 16장 -성과 계급과 인종을 중심으로”, 「구약논단」제13권 1호(통권 23집; 2007년 3월), 76-100; 유연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창 16:8) -페미니스트 비평과 하갈과 사라 이야기(창 16장과 21장)-, 「구약논단」제13권 1호(통권 23집; 2007년 3월), 101-117.

를 사라의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다.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생산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라는 자신의 불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사라는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 자녀를 낳을 것을 권면한다. 남편이 자녀가 없는 부인을 대신하여 그녀의 여종을 취해 자녀를 얻는 것은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허락된 제도에 속한다. 이런 행위는 기원전 18-17세기의 고대 함무라비 법전(the Code of Hammurabi)이나 기원전 15세기의 누지 문서(Nuzi Text)가 정당화시켜주고 있다(참고, *ANET* 146-147).²⁷⁾ 사회적 신분이 낮은 여인의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적 착취까지도 합법적으로 허용된 셈이다.²⁸⁾ 그런 이유로 하갈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주인 남편의 성적 파트너가 되고 말았다.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여종을 취하라는 부인의 권면에 순종하였고, 결국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서 본문은 이 사건 직후 관련된 해당 인물들 3명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상세히 소개한다. 애굽 여인이며 여주인의 몸종이었던 하갈은 임신과 함께 사회적 신분 계급이 달라졌고,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다. 임신한 여종 하갈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앞에서 방자히 행하였고, 사라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상속자(아들)를 낳은 여인은 안정된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²⁹⁾ 주인의 자녀를 임신한 여종이 임신을 하지 못한 여주인을 업신여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참고, 잠 30:23). 임신으로 인하여 방자히 행하는 여인은 다시 종의 신분으로 격하시켜야 한다는 함무라비 법전의 선언(참고, *ANET* 164)은 이러한 문제가 자주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27) John Van Seters,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5), 69-71.

28) I. Fischer, *윗글*, 14.

29) 김희권,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 사라", 『기독교사상』 536호 (2003년 6월), 132.

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주인 사라에게는 아무런 신분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신한 자신의 여종은 더 이상 한 단계 낮은 위치의 존재가 아니었다. 사라는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사라의 권면에 순종하여 그녀의 여종을 취했던 아브라함은 하갈과의 관계를 끊고 사라가 하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래서 임신한 하갈은 이제 여주인의 핍박과 보복을 받아야만 했다. 사라는 하갈을 확대하였다. 결국 하갈은 서러움과 굴욕을 당하고 한 맺힌 채로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다. 하갈은 성적 착취를 당하고 박해받고 서럽게 쫓겨난 성서 속의 첫 번째 여인이 되었다. 본문에서 사라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여인을 모질게 확대한 자였고, 하갈은 박해받는 여인이었다.³⁰⁾ 여주인에게 차별대우를 받으며 고통을 당한 애굽 출신의 몸종 하갈은 당시 사회제도의 희생자인 셈이다. 하갈은 후에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여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종용받는 한편 아들의 출생을 약속 받는다. 그녀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인데, 여주인으로부터 억압을 받은 하갈의 고통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었음을 암시하는 이름이다.

창세기 16장에 따르면, 여종을 통해 아이를 얻으려던 사라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임신한 하갈을 내쫓았으니 자녀를 얻기 위한 사라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임신한 여종에게 그에 합당한 삶의 공간을 보장해줄만한 그런 따뜻한 인간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사라와 하갈은 둘 다 아들을 절대시하던 고대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피해자들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아직 풍족한 삶의 과정을 경험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다. 창세기 18장 1-15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 남자의 마므레 방문은 우선 남

30) P. Trible, *Texts of Terror*, OBT (Philadelphia: Fortress, 1984), 9-35.

편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접대하였는데,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라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9절)는 그들의 질문 속에 아브라함 집의 방문목적 이 분명히 들어 있다. 그들은 1년 후 아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는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 아들의 탄생이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사라에게”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창 18:10). 이 구절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수령자인가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 아들의 약속은 놀랍게도 남편 아브라함이 아니라, 부인 사라를 향하였다. 늙어 수태가 끊어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수령자가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놀라운 신학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음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후손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점이다.”³¹⁾

창세기의 순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가 임신해 있던 1년 동안 다시 한 번 그녀를 이방의 왕에게 넘기는 악행을 범하였다(창 20장).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하는 동안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그에게로 데리고 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아비멜렉에게 사라는 미혼의 여인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알려준다. 어리석은 남편에게 희생당하고 있는 사라를 위해 후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하나님은 그녀를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위협의 말씀을 통해 사라의 귀환을 촉구하셨다(창 20:7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버린 불쌍하고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신 것이다. 아비멜렉은 창세기 12장에서의 애굽의 바로처럼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사라의 일로 인해 단혔던 아비멜렉의 부인과 모든 여종들

31) 이경숙, *룻글* (1993년 2월), 161.

의 태를 여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다(창 20:17-18절). “사라의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 놓으셨던” 상황 진술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진술은 사실상 바로 뒤에 나오는 사라의 임신과 이삭의 출생 보도(창 21:2-3)를 위한 신학적 문학 장치인 셈이다.³²⁾ 이 진술과 함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남자가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추방시킨 이야기(창 21:8-21)는 -창세기 16장의 하갈의 추방 사건과 마찬가지로- 족장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가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에 속한다.³³⁾ 하갈의 추방, 그녀 아들의 죽음의 위협과 구출에 관한 이야기는 울부짖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고통이라는 감성적인 주제로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통속문학에서도 자주 취급되어 왔다. 성차별적이고 계급 차별적인 차원에서 하갈은 억울한 희생자이며 위로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창세기 16장에서 시작된 하갈의 잉태에 관한 주제는 여기서 이삭의 탄생과 함께 기업의 상속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³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르자 사라의 자기의 아들이 남편의 첫째 아들이 아니며 기업의 우선 상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라의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

32) I. Fischer, *위글*, 16.

33) 창세기 16장 1-16절의 이야기와 창세기 21장 8-21절의 이야기 사이에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동일한 전승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고 전자를 J 문서로, 후자를 E 문서로 분류하기도 한다: John Van Seters, *위글*, 192-202; 김이곤,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65ff. 하지만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자는 불임과 임신의 문제로 발생한 사라와 하갈의 대립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자는 상속의 계승자 문제로 인해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야기의 핵심 주인공들로 크게 부각되어 있고 하갈은 전자에서보다 훨씬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자에서 하갈은 용기 있고 거만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비참한 동정적 입장으로 묘사되고 있다.

34) 박성진, “문학적 접근: 하갈의 설화에 나타난 광야와 구원의 역사”, 『경성대학교 논문집』 21집 2권 (2000년 8월), 173.

다. 이에 아브라함은 잔인하게도 불충분한 떡과 물 한 가죽부대만을 주고 그들을 광야로 내보냈다. 여기서 사라는 당당하고 힘과 권력이 있는 여주인으로 등장한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을 가진 지극히 가난한 가족이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애굽 출신의 여종의 가족일 뿐이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9절)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신분적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적인 설명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강력한 힘을 소유한 여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무력한 존재들이다. 이 모자는 당시 사회의 약자이며 학대받는 노예 가족일 뿐이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출해 주었다. 하나님은 목이 말라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음성에 즉각 응답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창 21:17).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주었고, 그녀로 하여금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다. 그리고 천사는 하갈에게 아들이 후에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건네 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창 21:18). 어두운 조명 속에 가려져 있던 불쌍한 이방의 여인 하갈에게 눈부신 광명이 비추이고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 한복판으로 내쫓긴 한 여인의 삶에도 동행하셨고, 저 멀리로 버려진 인간에게도 눈길을 돌리시고 그녀를 자신의 역사 계획안에 포함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광야에 버려진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 생명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주신 것이다.³⁵⁾ “돌보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비천한 한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과 희망을 주신 것이다. 광야에 버려진 아이, 심한 갈증으로 인해 곧 죽을 수도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

35) 게르하르트 폰 라트, 윗글, 215.

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데,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역설의 감동적인 메시지가 본문에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3. 나가는 말

죽장 이야기를 읽다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종류의 사건에서 차별과 폭력의 가해자로 등장한다. 아브라함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의 부인 사라는 두 번씩이나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다른 남자의 손에 넘어갔다(창 12:10-20; 20:1-18).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희생시킨 직접적인 폭력의 주인공이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첫 아들의 엄마가 임신한 상태에 있을 때에 자신의 부인에 의해 그녀가 광야로 쫓겨나는 일을 방조하였다(창 16장). 이번에 아브라함은 부인이 행한 폭력의 침묵자였으며, 간접적인 가해자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의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몰아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도록 하였다(창 21장).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방 출신의 여종과 그녀의 아들에게 동시에 무자비한 폭력을 가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사라에게서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비록 하나님의 명령으로 직접 아들을 묶어야만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악역을 담당하기도 했다(창 22장).

위에 등장하는 구약성서 본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있다. 억압과 폭력의 희생자들이었던 사라, 하갈,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구출 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성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왜곡된 사회 체제나 권력이나 강자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구출한 분은 하나님이였다. 사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행하신 첫 번째 구원행위

의 대상이었다.³⁶⁾ 사라의 “임신하지 못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녀의 불신앙적인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였다(창 21:6).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부인 사라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선언은 사라를 향한 것이었다. 광야로 쫓겨나 울고 있던 애굽 출신의 여인 하갈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갈은 종족과 신분과 성차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은 애굽 여인이라는 종족의 이유로, 혹은 여종이라는 신분의 이유로 그녀를 차별하시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권력자인 왕에게 넘기는 악행을 반복하고 하갈을 광야로 내쫓고 박해받도록 방조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들을 위로하시고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셨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폭력의 가해자인 반면,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의 해결사라는 사실이다. 아니 하나님만이 성차별적이고 계급차별적인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피억압자를 감찰하시고 계신다. 억압과 고통의 상황에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 깊이 간섭하실 때에만 가능하다. “야훼 하느님은 이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인간 모두가 각자 독립된 해방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신다.”³⁷⁾ 족장시대 가부장적 문화권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온갖 차별적 사회구조의 가해자임과 동시에 희생양이었다.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으로 그는 차별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서 본문은 그를 변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온갖 차별적 사고와 행동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의 고귀한 첫 번째 족장이 아닌가!

36) 이경숙, *뫼글* (1993년 2월), 163.

37) *뫼글*, 164.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성서 본문은 가해자 아브라함의 행위를 끝까지 정당화시키거나 변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성서 본문은 아브라함의 차별적 행동에 희생당한 여인들을 위로하고 감싸고 싸매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수많은 성서 본문들이 억압당한 여성들의 아픈 경험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³⁸⁾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은 이방의 여인이며 여종이었던 하갈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서의 설화자들과 저자들은 사회의 차별적 대상자들을 향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와 동정을 하고 있는 흔적들을 남겨놓음으로써 오늘 성서 본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적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장시대에 아브라함 주변에 나타나 어두운 운명에 몸서리쳤던 여인들에게 희망과 해방의 감격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직도 온갖 차별적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한국으로 시집온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들에게 은혜의 감격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 순종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4. 참고문헌

게르하르트 폰 라트, 「창세기」(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원제는 von Rad, Gerhard, *Das erste Buch Mose: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2).

기수현, “아브라함과 선조들 이야기의 문학적 접근”, 「신학전망」 136호 (2002년 봄), 101-130.

김상래, “이데올로기 비평으로 본 창 16장 -성과 계급과 인종을 중심으로

38) 이경숙, *뒤틀린* (2000년), 268-292.

- 로”, 「구약논단」 제 13권 1호(통권 23집; 2007년 3월), 76-100.
- 김이곤,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 김희권,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 사라”, 「기독교사상」 536호 (2003년 6월), 132-142.
- 박성진, “문학적 접근: 하갈의 설화에 나타난 광야와 구원의 역사”, 「경성대학교 논문집」 21집 2권 (2000년 8월), 169-187.
- 왕대일, “데라의 가정, 데라의 후에 - 창 11:27-32-”, 「기독교사상」 437호 (1995년 5월), 244-254쪽.
- _____, “보쌌당하는 사례”, 「기독교사상」 532호 (2003년 4월), 123-131.
- 유연희, “누가 위협에 빠진 미녀를 구하라 -수사학으로 읽는 창세기 26:1-11-”, 「한국여성신학」 51집 (2002년 겨울), 9-27.
- _____,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창 16:8) -페미니스트 비평과 하갈과 사라 이야기(창 16장과 21장)-, 「구약논단」 제13권 1호(통권 23집; 2007년 3월), 101-117.
- 이경숙, “이스라엘의 조상 사라와 베두인의 조상 하갈 이야기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410호 (1993년 2월), 158-165.
- _____, “구약성서에 나타난 성폭력과 여성옹호”, 「구약성서의 여성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17-234.
- _____, “희년을 향한 한국 여성신학의 과제”, 「구약성서의 여성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35-252.
- _____, “여성해방과 성서해석”, 「구약성서의 하나님 · 역사 · 여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68-292.
- _____, “생태학적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본 구약성서의 자연과 여성”, 「구약성서의 하나님 · 역사 · 여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93-329.
- 이영재, “이스마엘 탄생기에 나타난 오경신학과 그 발달사 -창 16장 1-16절 문단의 공시읽기와 통시읽기-”, 「구약논단」 제13권 1호(통권 23

- 집; 2007년 3월), 52-75.
- 이희학,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행동 -창세기 1-11장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정석규, “창세기 16장의 구조분석적 해석”, 「구약논단」 제13권 1호(통권 23집; 2007년 3월), 31-51.
- 천사무엘,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창세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한동구, “나그네살이 인생과 자손의 약속(창 16장)”, 「구약논단」 제13권 1호(통권 23집; 2007년 3월), 12-30.
- 클라우스 코호, 「성서주석의 제방법. 양식사학이란 무엇인가?」(허혁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5). 원제는 Koch, Klaus, *Was ist Formgeschichte? Methoden der Bibelexese*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74).
- Coats, G. W.,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3).
- Fischer, I., "Genesis 12-50. Die Ursprungsgeschichte Israels als Frauengeschichte", in: *Kompendium Feministische Bibelauslegung* (Gütersloh: Kaiser, Gütersloher Verl.-Haus, 1998), 13-25.
- Heister, Maria-Sybilla, *Frauen in der biblischen Glaubensgeschichte*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86).
- Trible, P., *Texts of Terror*, OBT (Philadelphia: Fortress, 1984).
- Van Seters, John,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5).
- Wenham, G. J.,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 (Texas: Word Books, 1987).
- Westermann, C., *Genesis. 12-36*,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81).

검색어

여성신학적 성서해석

아브라함과 사라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애굽의 여종 하갈

Re-reading ‘the Abraham-Sarah Story’ from the feminist-theological perspective

Hee-Hak Lee,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Mokwon University

From the story of Abraham, a Hebrew patriarch, Abraham appears as a perpetrator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many cases. He abandoned his wife Sarah twice, and then handed her over to another men(Gen 12:10~20; 20:1~18). Moreover, he conspired with his wife to drive Hagar out to the desert(Gen 16). He was the indirect perpetrator who kept silent at the violence that his wife had done. Abraham forced Hagar and Ishmael into the desert again and led them to suffer deadly threats(Gen 21). Abraham and Sarah inflicted the merciless violence upon the slave woman and her son.

The Old Testament texts mentioned above are saying the message in common. Sarah, Hagar, and Ishmael, who were the victims of oppression

www.kci.go.kr

and violence, were rescued by God. God does not want anyone to be oppressed by distorted society or the strong. God was the one who rescued Sarah from Pharaoh of Egypt. Thus, Sarah was the first object of salvation, pointing to the salvation of Israel. God solve her problem of sterility and also changed her unbelieving ridicule into true pleasure(Gen 21:6). He consoled Hagar who had been driven out to the desert with tears, and also gave her a message of redemption. He did not discriminate her on the basis of her Egyptian origin or slavery.

While God continued to be the problem solver, Abraham was the perpetrator of violence. God is the only the one who are able to resolve the problem of class discrimination as well as sexual violence. He takes care of the oppressed people all the time. To experience the true liberation in the situations of oppression and pain is possible only when God directly interferes with the scene of history. Abraham, who lived in the Patriarchal age, was a victim as well as an offender under the discriminating social structure. He was not evil in origin but social structure made him act as such. That is why it appears that the biblical text defends him. Although he was related to many discriminatory thoughts and behaviors, he was the first noble patriarch of Israel!

Key words

Feminist-Theology

Abraham and Sarah

Geneology of Shem

Geneology of Terah

Hagar the Egyptian maidservant

- 투고일: 2013년 6월 28일
- 심사일: 2013년 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07일

www.kci.go.kr